

우리금융그룹·KB국민銀 신입행원 총 1000명 채용

금융권 하반기 신입공채 본격화

국민銀, AI분석 등 채용공정성 강화
우리금융, 이달 중 3회 채용상담회

금융권의 하반기 신입직원 공채가 본격화된다.

KB국민은행은 2019년에 550여명 규모의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개 채용을 통해 신입행원 410여명, 상시 채용을 통해 경력직 전문인력 140여명을 채용한다.

공개채용모집부문은 ▲신입 유니버설 뱅커(UB) ▲신입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자격보유자 3개 부문이다.

먼저 신입 UB부문의 경우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직무 통합 채용을 통해 유니버설 뱅커(Universal Banker)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별 우수인재 선발 및 희망 근무지별 채용으로 현장영업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 ICT 부문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금융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IT와 디지털금융, 데이터분석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통합 채용한다.

전문자격보유자 부문에서는 감정평가사, 계리사, 공인회계사(KICPA), 변리사,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할 예정



이다. 고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신입행원 공개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구성된다. 채용 전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들은 평가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인공지능(A.I.) 분석을 병행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도 오는 17일부터 2019년 하반기 그룹공동 신입채용을 진행한다. 그룹채용 인원은 총 425명으로, 채용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

카드, 우리종금,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신용정보 등 5개 그룹사가 참여한다.

이번 채용은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의미의 '레츠 우리 투게더(Let's Woori Together)'를 주제로 진행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우리금융의 회사문화와 잘 어울리는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채용을 위해 오는 3일 '글로벌 잡 페스타(Job Fest a)'를 시작으로 '우리금융 잡 라운지(Job Lounge)', '우리금융 인재 페스티벌(Festival)' 등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이색 채용상담회를 9월 중 실시한다. 기존 캠퍼스 리크루팅 형식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지원자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깨끗 같은 분위기의 잡페어(Job Fair·공개 취업 설명회) 형식으로 채용상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룹 공동 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수 인재 확보가 기대된다"며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에 맞춘 이색 채용상담회를 통해 새로운 우리금융그룹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금융과 함께 할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홍민영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코스피 이틀째 상승… 1,970선 '코앞'

수는 전장보다 9.26포인트(1.52%) 오른 619.81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손보사 상반기 실적 '흐림'… 순익 1.5조

장기보험·車 보험 손실에
전년 동기比 29.5% 줄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실이 확대된 탓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4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감소했다.

보험영업손실은 2조2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손실규모가 1조1453억원 늘었다. 장기보험의 판매사업비 지출과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늘었다.

투자영업이익은 4조2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채권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등 금융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다.

보험영업수익은 보험종목을 불문하고 악화됐다.

장기보험은 2조1263억원 손실로 손실규모가 5132억원 확대됐다. 판매사업

비 지출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4184억원 손실로 정비 요금 인상 등 원가상승 등에 따른 보험금 증가로 손실규모가 4153억원 확대됐다.

일반보험은 2862억원 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감소했다. 자연재해 관련 해외수재 등으로 손해액이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312조 32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말 대비 9.9% 증가했다. 책임준비금 등 부채는 장기보험 판매 증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8.3%, 자기자본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익 확대로 21.4%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단기적 외형경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손보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정부, 추석 맞아 정책자금 16.2조 풀다

금융위 '추석 금융 민생지원' 연휴에 대출 만기시 16일 상환 소상공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정부가 추석 연휴 긴급자금이 필요 한 중소기업에 16조2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은 추석연휴 전 결제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별도 수수료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 상환하면 되고, 금융업무가 필요한 소비자는 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총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낮춰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한 기업 당 최대 3억 원 규모로 3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말까지 신규 보증 1조4000억원, 만기 연장 3조8000억원 등 모두 5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상담 및 지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는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11일까지 상인

회별 2억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5만개 중소가맹점은 가맹점 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앞당겨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평균 약 3000억원 가량의 카드대금을 조기지급하게 돼 자영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아 금융업무를 볼 수 없다면 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은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연휴 중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환전 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나유리 기자 yul115@

상반기 카드로 하루 평균 2.5兆 썼다

하루 이용금액 전년比 5.8% 증가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결제금액이 하루 평균 2조5000억원을 유행했다. 현금 대신 카드를 쓰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평균이 용금액도 지난해보다 5.8%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 이외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 금액은 일평균 7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1조4000억원) 대비 2.2% 감소했다. 현금 이외 지급수단은 계좌 이체, 어음·수표, 지급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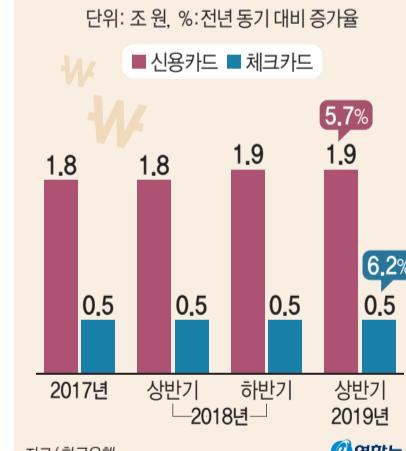
상반기 신용·체크·선불·현금IC·직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실적은 일평균 2조4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조9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어났다. 이 중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1조5130억원)은 전자상거래, 의료·보건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7.4% 늘었다.

개인 신용카드의 소비유형별 이용실적을 보면 전자상거래,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쇼핑 등 통신판매가

일 평균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단위: 조원,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연합뉴스

공공주택에 시각인지약자 위한 색채디자인

LH, '색채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LH는 고령자, 색약자 등 시각인지약자를 위해 공공주택에 색채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도입한다. CUD란 개인 유전자의 특성이나 다양한 눈의 질환에 따라 시각인지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용자 관점에서 만든 색채디자인이다.

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LH는 안전에 대한 생활 노출빈도가 높고 디자인 향상에 효과가 뚜렷한 아파트 경관 CUD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일반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CUD의 해외적용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국내 공공주택에 이

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KCUD)와 지난달 30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로 양기관은 공공주택의 가치와 포용적 주거환경 구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가이드라인 제작 등 각종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CUD의 취지 및 우수사례 홍보, 연구개발, 국민참여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23.0% 늘어났다. 공과금 및 개인·전문 서비스는 9.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영향으로 의료 및 보건이 9.0%, 지난 3월 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으로 교육이 7.7% 증가했다.

체크카드 이용실적(5210억원)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계 혜택, 신용카드와 대등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지급카드 전체 이용 실적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전년과 같았다.

/김희주 기자 hj89@